

## 최선을 다하고 난 후



최 정 옥

- 휘문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 2020년도 5급 공채 기계직렬 합격

###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20년도 5급 공채 기계직 합격자 최정욱입니다. 저는 3번 정도 수능을 보며 매 수능마다 실패를 하고 좌절해 있는 저에게 지인의 고시공부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명예회복을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 있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전역 후 주변 친구들에게 2년 안에 붙는다고 말할 만큼 자신이 있었지만 막상 2차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해보니 예상 외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최종합격 명단에 제 수험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동안 공부했던 기억들이 스치며 혼자 소리 지르며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꼽으라면 공부 양은 산더미 같은데 공부 방향을 못 잡아서 스스로 전전공공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학교 고시책자 포함 고시처럼 양이 많은 시험들의 수기들을 읽으며 많이 고민하고 공부 아이디어를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제가 쓰는 수기가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과장 없이 제가 공부했던 기억들을 그대로 끄집어내어 쓰도록 노력했으니, 본인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II. 수험기간 개괄(2017년 6월 ~ 2020년 12월)

### 1. 2017년 6월 ~ 2018년 11월

이 기간에서의 공부 방법은 군 안에서 고시공부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학년1학기 끝나고 고시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시험 마지노선의 나이로 27살을 생각했습니다. 전역하면 25살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최대한 공부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입대 전 먼저 복무중인 친구들에게 각 부대의 공부 환경과 시간에 대해 많이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당시 타 군과 다르게 공군이 시험 성적으로 특기와 자대가 결정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입대까지 남은 한 달을 한국사, 토익과 훈련소 안에서 보는 시험들을 나름 준비해서 제가 원하는 특기와 자대로 배정받도록 했습니다. 방공통제특기 오산 미공군기지에서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근무 스케줄은 3일 교대근무, 2일 휴식이었는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5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딱 채워진 5시간이 아니라 근무중간 30분 쉬는 시간 공부 및 근무 도중 10분 공부 이런 자투리 시간과 점호 후 2시간의 공부 시간들이 합쳐져 공부시간을 이루었습니다. 부대 안 대부분의 병사들이 고시공부를 하거나 로스쿨을 다니다 와서 대학교 도서관 못지않은 독서실 분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휴가까지의 계획을 세워서 (1달 반 간격) 군 안에서는 공부를 하고 밖에서는 다음에 들어가 공부할 책과 자료들을 들고 가는 루틴을 세웠고 복무기간동안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군 복무 중 고시합격을 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시되겠다는 목표로 바쁘게 공부를 했습니다. 한 가지 걸림돌은 제가 2차과목 수업을

(고체역학) 빼고는 듣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자료가 많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차선책으로 최대한 기본을 잘 닦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고 하다 보면 저절로 길이 보일 것이라 믿으며 시작했습니다. 첫 두 달은 Gere재료역학 공부에 투자했습니다. 책 안의 연습문제를 모두 풀고 2,3회독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1차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PSAT과 헌법 공부만 했습니다. 각 과목의 기본강의를 다 듣고 강사 별 모의문제도 모두 풀었는데 시간이 남았습니다. 남는 시간 동안 강사 별 심화 강의를 모두 듣는 등 군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PSAT은 높은 점수였지만 헌법을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게 되었고 2차시험까지 세운 공부 계획이 다 흐트러지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나가 마음 정리를 했습니다. 군 복무의 반을 적어도 제가 근무하는 오산기지 안에서는 가장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으며 다음 복무반도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전역 전까지 아직 공부 못한 2차 과목들의 기본서들을 보고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계설계와 동역학 기본서들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했습니다. 기계공학법의 경우 한 번 다 외우고 전역하는 게 목표였으나 공부 방법을 모르기도 했고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도 몰랐으며 책이나 인터넷을 찾기에는 열악한 환경으로 결국 보지 못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PSAT점수를 어느 정도 안정화 시킨 상태에서 전역했다는 건 나중 1차 기간에 2차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 2. 2018년 11월 ~ 2019년 6월

2018년 11월~2019년 2월은 본가에서 1차 공부를 했습니다. 이전 시험을 볼 때 큰 문제점이 실전감각 부족과 혼자만의 풀이 고착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매주 전국모의고사를 보러 갔고 외부 스터디를 통해 다양한 풀이법을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1차시험은 행정직과 동일하기 때문에 재경 및 일행과 7급 지역인재 사람들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일요일마다 만나 기출문제 한 세트를 다 같이 풀고 리뷰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군 복무 중 인강기본서들을 많이 공부했던 상태라 스터디에서 공유하는 지식들이 대부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다른 한 분께서 “어떤 분은 스톱워치를 들고 시험을 보더라.”라는 사소한 말을 한 것이 제가 갑자기 PSAT 점수 상승을 하는 큰 노하우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모든 과목 한 문제마다 스톱워치를 재며 풀었는데 생각보다 한 문제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짧게 느껴졌고 덕분에 조금만 마음이 진정되면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시험이 끝나고 휴학을 하며 고시반에서 하는 2차시험 스터디에 참여했습니다. 이 때의 4개월 정도가 공부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제가 계획했던 공부 방법이 많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했으며 이 기간 동안 일주일에 두 번 정도로 시행착오를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군 안에서 많이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적으로 적었던 정보와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져 허무한 기분도 느꼈습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군 복무 중 공부했던 헌법, PSAT이 제가 상대적으로 1차

공부시간을 적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전공 별 기본서 공부가 2019년 시험 때 얼른 스터디에 참여해 빠른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공작법의 경우 제가 공부해 놓았던 것이 없었으며 4개월이라는 촉박한 시간 동안 따로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양을 이해하지 않고 통으로 암기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다른 과목들이 소홀해졌습니다. 19년 합격을 위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또한 공부를 하며 처음으로 외로움도 정말 많이 느꼈고 무엇보다 예민함이 반복되며 스스로에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5월쯤에는 개인사정이 겹쳐 공부에 집중이 너무 힘들었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허리가 안 좋아져 한 달 전에는 앉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목표가 19년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합격준비에 100%는 없다는 생각으로 꾸역꾸역 밀고 나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겪은 많은 어려움들이 제가 20년 시험을 공부하는데 있어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험까지 최대한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려 했던 노력이 어떻게 보면 길어질 수 있는 수험기간을 단축하는데 큰 기여를 해주었습니다.

## 3. 2019년 8월 ~ 2020년 12월

2차시험이 끝나고 쉬는 3개월의 기간 동안 이전 시험에서 문제가 되었던 공부 방법과 심리 및 체력 문제를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행정직 포함 타 직렬의 합격수기를 거의 다 읽어보며 공통된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시처럼 공부 양이 많은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

하며 이런 시험에 대비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기본서를 꼼꼼하게 보고 불의타 문제에는 큰 신경을 안 쓰는 전략을 도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는데 위치럼 전략을 수정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신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큰 돈을 들여 북 수원 근처 필라테스를 1대1로 배웠습니다. 트레이너 분께 시험 준비로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 어깨, 목, 허리가 아프다는 설명을 해드렸고 장기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필라테스를 가르쳐 달라 부탁드렸습니다(덕분에 반년 정도 오래 앉아도 몸이 아프지 않았고 체력도 좋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는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합격수기들을 읽으면 매주 스터디를 통해 극복했다고 나와 있지만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것도 충분히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과외를 했고 또한 학교 내의 가톨릭 동아리에 들어가 사람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으며, 동아리 안 수녀님으로부터 명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뒤로 시험 전날까지 매일 밤마다 명상을 했는데 덕분에 제가 불안함을 줄이며 흔들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심리 상태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시험 전까지 제가 부족하기도 했고 잘하고 싶었던 재료역학과 공작법 공부에 투자했습니다. 작년의 시행착오 덕분에 공작법은 한번을 다 본 상태여서, 공부하는데 개념이 서로 합쳐지고 재미있었습니다. 2019년 시험 때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공작법의 많은 암기사항들이 점점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료역학은 한 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니 시야도 넓어졌고 실력도 많이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학년 2학기 복학을 하여 전공 수업을 들었는데 고시과목을 듣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전공심화 위주로 들었습니다. (탄성학, 생산시스템, 유체역학-액체문제 익숙해지려고). 2차과목과 큰 관련은 없었지만 오히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더 추가되는 내용을 공부하니 전반적으로 2차 과목의 감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졌습니다. 1차시험 공부는 두 달 전까지 2차와 병행하며 신림에서 입법고시 스터디를 했고 한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1차 공부를 했습니다(이 때는 2차 이론들을 스캔하여 이동시간에 핸드폰으로 보며 감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코로나로 시험이 연기되면서 상대적으로 2차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 공부했던 건 하나도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2차 공부를 올인했습니다. 1차시험 이후 공부 환경을 바꾸고 싶어 도서관과 스터디 카페를 왔다갔다 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6월초에 흔히 말하는 번아웃 증상이 생겼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아직 공작법 암기할 사항과 설계 암기 사항이 많았는데 뜻대로 몸과 생각들이 움직이지 않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때 또한 다른 합격수기들을 읽으며 포도당 주사에 대해 알았고 곧장 병원에 가서 맞았는데 효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적어도 공부할 수 있는 체력상태에서 해야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2차시험을 보는 5일간의 시험기간동안 잠을 거의 못 잤는데 이는 결국 마지막 기계설

계 시험 전날에 6월초와 비슷한 번 아웃 증상이 왔습니다. 계속 밖을 걸어 다니며 필수적인 내용을 공부했고, 불안함을 줄이기 위해 명상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험과목이 어렵기도 했고 누구나 맞출 법한 큰 배점의 문제를 틀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공작법, 재료역학, 동역학을 보았을 때 속으로 설계만 잘보면 합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설계를 크게 망치고 나서 떨어지겠다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공부할 힘이 없어서 집에서 쉬는 한 달 동안 다른 진로를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 4. 2020년 9월 ~ 2020년 12월

시험을 그만두려고 했으나 내년엔 무조건 합격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부하기가 싫어 친구 아이디어로 타대 커뮤니티를 통해 외부 스터디에 들어갔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셔서 저 또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한 달 반 정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저 포함 다른 스터디원들과 함께 2차시험을 합격하게 되어 중단에 그만두었습니다.

2차시험 점수가 커트라인이라 생각하여 면접에서 무조건 1등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면접 및 말하는 것에 자신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사 상식과 정책관련 용어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3주의 기간 동안 각 부처의 정책 뉴스, 국회 이슈와 논점, 종이 신문 등을 엄청 봤습니다. 첫 모의 면접 때는 우수를 주려고 했으나 말이 길다는 평을 받았고, 마지막 모의 면접 때는 PT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면접장에서도 편한 마음으로 임했

고 잘하면 우수를 받을 수도 있겠다...란 생각으로 2020년 시험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점수는 81.71점(커트라인인 76점)이었습니다. 2차시험 이후 스스로 채점할 때 김칫국 마시는 것을 줄이기 위해 틀린 문제는 0점으로 채점을 했는데 예상 점수가 78점 내외였습니다. 결과를 보며 안도와 함께 혼자서는 이를 수 없는 수험과정이라 생각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 III. 제1차시험의 과정

#### 1. 헌법

저 같은 경우 초시 때 통치구조를 버리고 공부할 정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게 되었고 헌법 공부를 제대로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2020년 시험의 경우 헌법이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로 나와 수월했지만, 가끔 부속 조문이 많이 나오게 되면 헌법으로 1차시험의 당락이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록 P/F과목이긴 하지만 판례와 부속 조문 하나 빠짐없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신 판례는 꼭 나오므로 정말 빼먹지 않고 공부하시기를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금동흠 강사의 강의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한 기본 상식이 부족한 편이라 그런지 이해보다는 암기위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고 재시 때 김유향 강사의 헌법 기본강의를 들었습니다. 기본 강의 후 김유향 강사의 기출문제집을 풀었습니다. 문제 아래 해설 내용 중 조문위주로 밑줄을 그으며 기출문제집 전체를 해설 포함하여 달달 외웠습니다. 이 때 헌법은 객관식 시험이므로 눈으로 문구들을 담아둔다는 생각

으로 외워 주시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시험 한 달 전에는 김유향 강사님의 헌법 진도별 모의고사를 들었습니다. 이 강의에서 기본서 내용을 다시 강의 하시는데 이를 통해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을 공부하며 리마인드 시키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는 기출문제집을 통해 객관식 문제 푸는 능력을 기른 이상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헌법 기본강의, 조문강의 > 헌법 기출문제집 해설 포함 눈으로 외우기 >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에서 기본서 빠진 내용 익히기 > 시험 3주전 최신판례 듣기 순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정도 공부하고 19년 시험을 들어갔는데 헌법을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시험 준비 때는 조금 더 욕심을 내어 기출문제집 해설에 추가적으로 기본서 책의 부속 조문들은 모두 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휘발성이 강했으며 시험 전날에 공부하기가 벅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서는 기본강의와 진도별 모강 강의 때 설명한 부분 위주로 보시고 나머지는 기출문제 해설책을 달달 눈으로 외우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조문은 기본).

## 2. 언어논리

제가 수능 국어를 정말 못하는 편인데, 언어논리는 처음 진입할 때 다른 과목들에 비해 가장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모의고사 점수는 괜찮았지만 실제 1차시험에서의 결과는 항상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과목이기도 합니다. 초시 때 김우진 강사의 논리논증 강의를 들었는데 이때 잘 공부한 덕에 재시와 2020년 시험의 경우 논리문제로 크게 걱정한 적은 없습

니다. 2018년 시험이 마친 후 문제를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고 싶어 조은정 강사의 기본강의를 수강했으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요즘 경향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2020년 시험 때는 일치부합형 문제를 빠르고 제대로 풀기 위해 이나우 강사의 강의를 수강했고 이때가 되어서야 언어논리 기출분석을 조금 더 제대로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이나우 강사의 독해연습책으로 읽는 연습을 했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연기되면서 독해력 감이 떨어진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언어논리의 경우 이나우 강사의 2020년 10회 모의고사와 입법고시를 풀었습니다. 입법고시 문제는 5급 공채 문제와 언어논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강사별 모의고사 문제가 실제 시험문제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모의고사를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남게 되었을 때 LEET 추리논증에서 어려운 문제들만 따로 풀었습니다. 최근 경향이 LEET 문제들과 비슷하게 가고 있고 신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LEET스터디를 1차 진입 전에 공부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시험이 끝나고 리트 언어이해까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PSAT 기출분석과 다른 기본강의를 모두 수강하시고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시간이 남으신다면 LEET문제까지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2018년 시험 끝나고 느낀 것은 아무리 평소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와도 PSAT시험장

에서는 높은 점수보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안정적인 점수를 얻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70~80사이의 점수를 문제 난이도와 상관없이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독해문제의 경우 저도 모르게 “3번이 맞겠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답이 확실하지 않는 이상 10초라도 다시 점검해주고 넘어가는 연습을 했는데 이를 통해 두 문제 정도는 더 맞을 수 있었습니다. 논리퀴즈 문제는 제대로 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지를 대입하여 풀어도 되고, 경우를 나누어 풀어도 됩니다. 따라서 각 문제별로 가장 빠른 방법들을 파악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문제를 푸는데 33~35분을 할애하였고 20문제 중 논리 퀴즈 포함하여 3~4문제 정도를 버리고 넘어갔으며, 남은 10분을 버린 문제들 중 쉬운 문제를 푸는데 투자하였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상황을 대비하는 전략을 따로 세웠습니다. 강사들의 기본강의를 배우며 습득한 지식과 혼자 공부하며 얻은 지식 및 시간전략을 다 버리고 그냥 눈으로 빠르게 지문 읽고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높은 점수는 받을 수 없지만 적어도 70점 이상의 점수는 받을 수 있어서 간혹 모의고사 때 테스트 해보았습니다. 2020년 시험의 경우 제가 정 가운데 자리에 앉았는데 시험 감독관분께서 구두소리를 내며 제 주변을 계속 돌았습니다(결국 참다가 시험 40분정도 지났을 때 말씀을 드렸고 알고 보니 감독관께서 감독을 처음 하신 거 같았습니다). 이때 멘탈이 흔들려서 위의 전략을 적용했는데 최대한 언어논리가 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 3. 자료해석

자료해석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고 모의고사를 봐도 백분율이 항상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점수가 낮았다가 갑자기 상승하게 된 것은 큰 틀을 바꾼 게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료해석 점수가 낮으시거나 이과생들 중 평균 이상의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사용한 큰 틀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해석 과목에 있어 저에게 도움을 준 의문점은 “나는 누구보다 계산속도 및 암산이 빠른 편인데 왜 점수가 낮고, 재경직 분들보다 수학지식도 많은 편인데 왜 다들 나보다 잘 볼까?”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료해석은 80점 근처의 점수를 받는 게 잘하는 실력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처럼 언어와 상황판단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 분들은 자료해석으로 전체 평균 점수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실력이 허용되는 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목 전략에 있어 가장 큰 틀은 ‘계산 하지 않기’와 ‘스톱위치 생활화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 계산이 빠른 편이라 따로 계산 연습을 하지 않아도 외부 모의고사를 보면 한 자릿수 퍼센트(벗어나면 10%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보면 버린 문제에서 틀리기보다 40문제를 다 풀고 실수로 3~6문제를 틀렸습니다. 따라서 컨디션이 안 좋거나 문제가 어려운 시험에서는 40문제를 다 못 풀어 실수+못 풀 문제가 틀리면서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2019년부터 최대한 계산을 안하고 풀 수 없는 지 고민을 하며 기출문제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안하고 풀 수 있는 문제가 35개 정도였고 이렇게 하니 에너지도 절약되어 상대

적으로 실수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무엇보다 2016년 자료해석 계산이 더러운 편인데 이 또한 계산을 줄이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제 푸는 기출문제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아래 자세히 썼는데 '석치수 심화강의'를 들으며 문제에 필요한 방법들을 모두 체화합니다. 그리고 그 때 배운 방법들을 펜을 내려놓고 기출문제에 눈으로 적용해가며 풀면 큰 도움이 됩니다(물론 3~5문제 정도는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이 판단해서 10문제가 넘지 않는 선에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입법고시는 계산도 힘들겠지만 행시보다 이런 방법들이 문제에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법률저널 모의고사의 경우 70%정도 문제는 눈으로 가능하나 나머지 30%문제는 계산을 요구합니다. 신현 모의고사는 쉽다고 생각하고 강사님 특유의 함정들이 있어서 저는 잘 안 풀었습니다. 석치수 모의고사에 행시에서 요구하는 이런 전략들이 깔끔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점수가 낮거나 계산이 복잡해도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기 위해 석치수 모의고사만 풀었습니다.

매 문제마다 스톱워치를 재면서 푸는데 생각보다 한 문제당 1분~2분 사이로 끊게 되어 조급함에서도 벗어나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답이 나오면 넘어가고, 위의 계산 없이 푸는 방법을 익힌다면 정해진 시간 안에 거의 버리는 문제 없이 40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학교 복지회관 모닝글로리에 가면 듀얼 스톱워치가 있습니다. 한 화면은 90분의 시간을 표시하고 다른 화면은 문제 풀 때마다 계속 리셋하며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만약 제가 푸는 시간이 2분 30초를 넘어가면 그 때는 문제를 나

중에 다시 풀지 또는 계속 답을 낼지 결정했습니다.

초시 때 신현 강사의 기본강의를 들으며 자료해석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잡았고, 이후에는 심화강의를 들었습니다. 재시 때부터 석치수 강사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석치수 강사와 정말 잘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 모의고사도 당해년도 석치수 10회 모의고사만 풀고 들어갔습니다. 2020년도 시험 때는 석치수 강사의 심화강의가 정말 좋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수강했습니다. 사실 이 과인 저에게 기본강의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심화강의를 들으니, 각 문제별 푸는 팁과 실수 포인트 등을 모두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문제들만 모아 놓으셔서 자료해석 양치기 효과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시험의 경우 언어논리가 끝나고 점수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여 저에게 자료해석은 85이상의 점수가 필요했습니다. 2020년 자료해석 시험이 굉장히 쉽기도 했고 위의 전략으로 시간이 충분한 상태에서 중간에 버리고 넘어간 6문제가 남았습니다. 6문제를 더 풀 수도 있었으나 안정적인 85점이 필요하여 남은 34문제 검산을 했고 두 문제는 시간 상관없이 꼼꼼하게 계산을 하여 87.5점의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버린 4문제 틀리고 한 문제 실수). 자료해석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고 실력까지 올려놓고 시험장에서는 다른 과목들에 맞춰 유동적으로 점수를 조절할 수 있는 전략까지 가져간다면 안정적인 1차시험 합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양치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보통 자료해석은 양치기(모의고사 많이 풀기)가 통하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료해석은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나 실수 포인트 들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치기를 한다면 이러한 포인트들에 익숙해질 수 있고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2차 과목 공부도 해야 하고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면 양치기 보다는 석치수 심화강의를 수강하시면서 기출문제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홍보의도는 정말 없지만...숨겨진 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 4. 상황판단

상황판단 과목은 저 스스로가 올릴 수 있는 점수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접근했습니다. 따라서 난이도에 상관없이 75점 전후의 점수를 받고자 노력했습니다.

초시 때 박준범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했고 이어 심화강의까지 들었습니다. 법률형 문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심화강의에서 어려운 법률형 문제를 공부하며 해결되었습니다. 모의고사도 매 시험마다 당해년도의 박준범 강사님 문제만 풀고 들어갔습니다. 2019년 시험 때 하주웅 강사님의 퀴즈관련 강의를 수강했는데 특별한 풀이보다는 많은 퀴즈 문제를 푼다는데 의의를 두었고 이를 통해 당연히 맞아야 할 퀴즈 문제를 실수 없이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치부합형의 경우 지문을 다 읽기 보다는 한 단락 보고 문제를 푸는 식으로 해서 시간을 줄였습니다. 법률형은 눈으로 일단 스키밍 하고 선지를 보며 관련 부분을 찾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는 흔히 추천하는 1342

순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퀴즈와 수리계산형의 경우 선구안 기준을 '풀고 싶은 문제 풀기'로 했습니다(스터디 때 모의고사에서 한 자릿수 퍼센트를 유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특별한 선구안 없이 종이를 넘기면서 저렇게 푸시길래 적용. 또한 다른 분은 그냥 40번까지 순서대로 풀기도 함). 최종적으로 6~8문제는 버린다는 생각으로 풀었습니다. 요즘 추세가 상황판단 퀴즈가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저 또한 퀴즈를 풀다가 도저히 못 풀겠어 75~80 정도의 점수만 맞겠다는 생각으로 버려가며 풀었습니다.

#### 5. 종합

PSAT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입니다. 저는 과목들마다 실수한 문제들을 집계로 집어 매주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실수들을 외워두고 들어갔습니다(관련 문제를 풀 때 실수한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게 만듦). 그리고 검산 없이 한 번에 정확하게 푸는 게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 잡기이며 2차시험 포함 대부분의 사람이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수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평소 외부 모의고사는 잘 보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1차시험장에서의 점수는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외부 모의고사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는 실제 시험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높은 점수를 받겠다는 생각보다 최대한 난이도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커트라인 +3점 정도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보시기길 추천드립니다!

## IV. 제2차시험의 과정

### 1. 기계공작법

기계공작법은 많은 분량을 암기하여 시험지에 적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기계직의 다른 과목들(재료역학, 기계설계, 동역학)은 대부분 초시 때 잘 공부하면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는 실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공작법은 공부 방향에 따라 합격을 위한 소요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계공작법을 80점 근처의 점수로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칼팍의 공업재료가공학’ 이란 책과 ‘그루버의 현대제조공학’ 책을 많이 봅니다. 칼팍의 책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칼팍 책만 잘 공부해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루버는 칼팍과 공통된 부분 중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 부분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 편입니다. 공작법 과목은 애초에 암기양도 너무 많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외우지 못하거나 운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책을 통해 이론을 공부하기보다 위의 책들 중 시간이 없다면 칼팍만이라도! 시간이 된다면 그루버를 포함하여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험 공부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두문자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암기하기도 합니다. 다각자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시반에서 여러 사람들의 방법을 참고하여 본인만의 방법을 만들면 좋습니다.

저는 내용을 노트 정리하는데 익숙하지 않

은 편이어서 다른 사람의 서브노트를 제 방식으로 변형하고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을 두문자 정리하기보다 이해를 통해 암기하다가 정말 암기가 안 되는 부분만 따로 두문자를 따서 암기하였습니다. 기출분석을 하여 2019년 시험 때 나올 만한 부분을 예측하여 외우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제가 예측한 단원들은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0년 시험 때는 선별하여 외우기보다 최대한 모든 단원의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하루의 첫 공부 시간을 이용하여 암기하고 저녁 집 가는 길에 자취방 앞 PC방에 들러 그 날 외운 내용을 좋은 키보드와 함께 백지 복습을 하였습니다. 올해 2020년 시험의 경우 공작법 문제가 최근시험들 중에서 가장 쉽게 나왔습니다. 2차시험이 매년 과목들을 번갈아 가며 변별을 주고 있다 생각이 들어 앞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공작법을 조금 더 정성 들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공작법에 계산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칼팍 예제에서 주로 발췌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내년 시험도 칼팍 예제의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서 중 그루버의 예제까지 대비하고 칼팍 여러 공식들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재료역학

재료역학 2차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학부 때 학교에서 보는 중간 및 기말고사 난이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학부 때의 공부는 재료역학의 절반 단원만 준비

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지만 기술고시의 경우 전 범위 시험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재료역학이란 학문의 전 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책들을 보며 빠진 개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총 4과목을 보기 때문에 자칫 다른 과목들(특히 기계공학법)을 공부하다가 시간 부족으로 재료역학 감을 잃어 시험장에서 실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공부전략을 세울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서로는 주로 Gere의 재료역학, Beer의 재료역학 그리고 Crandall의 고체역학을 봅니다. Gere 재료역학 교재를 1~2달 정도 잡고 모든 연습문제를 푼다면 시험 준비를 위한 재료역학의 기본 실력이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 합격수기들을 보면 티모센코 2판도 본다고 나와 있지만 개인적으로 티모센코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은 이미 고시반의 서브노트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Beer같은 경우 문제가 쉽고 약간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풀 필요는 없고 발췌해서 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렌달 책은 예전 기출문제들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지만 요즘 경향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책들을 발췌해서 공부한 뒤 추가적으로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단원을 골라 다른 책들을 발췌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재료역학이 워낙 광범위 하고 책들도 다양해서 공부할 양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위의 3가지 책과 다른 서브노트의 기출스러운 문제들만 잘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개념이 나온다면 모두 틀릴 것이고 대부분의 수험생은 재료역학에서 문제를 몰라 틀리

기보다는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의 3가지 책과 다른 서브노트 한 권을 다양하게 생각해보며 사고력을 기르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책 및 많은 문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양은 한계가 있음을 명심하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재료역학 경향은 토목직렬의 응용 및 구조역학 느낌의 문제가 한 두 문제 씩 나옵니다. 물론 구조역학 공부를 한다면 좋겠지만 빠른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응용역학과 구조역학 기출 및 건축토목기술사에서 나올 법한 문제 및 문제에 모르는 용어가 있다면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3. 기계설계

기계설계는 학부에서 기계설계입문과 기계요소설계 과목이 합쳐진 과목입니다. 범위를 넓힌다면 끝도 없이 공부 양이 많을 수 있고 좁힌다면 한정된 범위에서의 양을 공부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하며 울타리를 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 모두 홍장표 저자의 기계설계 책을 기본서로 봅니다. 책 안에 많은 이론과 연습문제들이 있는데 3년 전부터 책안의 이론들이 기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외 외국용 설계 책으로는 주비날, 쉬글리, 노턴, 우그랄 등이 있고 한국용 설계 책으로는 정선모, 정재천, 공성인, 장희석, 정남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서브로 정건영 서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곳에서 기출에 맞는 책을 골라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 경향을 보면 외국용 설계 책보다 한

국용 설계 책을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홍장표 책만 제대로 봐도 합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최근 출제 경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홍장표 책을 이론 포함하여 꼼꼼하게 보고 빠진 부분을 한국용 설계 책을 통해 보충하면 좋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 쌓이면 책을 발췌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정건영 서브를 통해 색다른 문제를 골라서 본 뒤 마지막으로 주비날 책에서 특이한 이론이나 그림의 문제들을 발췌해서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도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모두 집어넣는 것도 충분하므로 많은 책과 많은 내용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공부하다 정말 기본적인 것들 자기도 모르게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설계는 학부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는 위을복 저자의 기계 설계 기사책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홍장표 책을 공부했고 추가적으로 정건영 서브를 발췌한 제가 갖고 있는 서브로 공부했습니다. 2020년 시험 준비 때는 홍장표 책의 이론들과 장희석 저의 한국책으로 빠진 부분만 공부했습니다. 보통 기사책도 공부하는데 문제가 쉬운 편이어서 위의 과정들을 거친 후 눈으로 빠진 부분만 챙겨주면 충분합니다.

#### 4. 동역학

선택과목으로 동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자동제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동역학을 선택하였으나 최근에 진동학도 문제에 등장하면서 열역학 선택자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동역학은 처음에 공부하기 힘들나 한 번만 제대로 봐두면 나중에는 크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효자 과목입니다.

진동학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너무 어려우나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다 보면 비슷한 흐름이 반복되기 때문에 점점 공부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역학은 주로 Beer저자의 동역학 책을 많이 봅니다. Meriam책도 동역학 기본서로 꼽을 수 있으나 비어 저자의 책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론만 Meriam을 보고 문제는 Beer만 풀었습니다. 진동학은 Inman 책을 많이 보지만 문제가 너무 평이하기 때문에 학부 책인 Rao저자 책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과목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다른 책이나 서브노트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역학은 응용력만 기른다면 다른 문제들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 배점이 더 크고 공부할 양도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nman은 Rao에서 빠진 개념을 보충하는 용도로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역학을 처음 공부할 때 수업을 안 들기도 했고 이해가 안 되어 애를 먹었습니다. 따라서 이론을 문제 풀 공식정도만 외우게 공부한 뒤 문제를 풀며 반복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한 번 끝까지 공부하고 나니 그 뒤로는 개념들이 합쳐지며 이해가 잘 되었고 틀이 잡혔습니다. 2019년도 시험을 준비하며 Beer 책의 문제들을 풀고 중요한 문제들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시험 준비 때는 진동학 수업 관련하여 친구 아이디어로 이상원 교수님의 강의저장 수업을 들었습니다. 2020년 시험 준비 때 동역학은 위의 중요한 문제들만 풀었고 나머지 시간은 진동학에 투자했습니다. Rao책의 모든 문제들을 보며 중요한 문

제들만 따로 선별하여 반복적으로 풀었고, 추가적으로 빠진 부분을 Inman책으로 보충했습니다. 올해 시험의 경우 전체 4문제 중 진동학이 2문제가 나올 정도로 점점 진동학 비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격을 위해서는 진동학 부분도 필수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5. 종합

2차시험은 수능 수학 30번과는 다르게 문제들마다 난이도가 아주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4과목 모두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서 내가 모르는 단원이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한정되지 않는 많은 양을 공부하느라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양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양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기본서들 위주로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풀며 분석하다 보면 스스로 공부범위의 울타리가 생깁니다. 저 또한 2019년도 시험 때는 책을 많이 보고, 많이 알면 되는 시험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실패한 뒤 수많은 합격수기들을 읽으며 고시처럼 양이 많은 시험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즉 각 과목별 2~3권 정도의 기본서들만 꼼꼼하게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많은 양을 공부하다 기본적인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이 많은 기계직렬은 실수가 합격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수를 잡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공부를 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실수를 할 때마다 따로 종이에 실수한 부분을 적었습니다. 매 과목 공부하기 전에 달달 외워서 문제 풀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보기 두 달 전부터 풀었던 기출문제들을 반복해서 풀며 감을 날카롭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공부하셨다면 양을 늘리기보다 실수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고시공부를 3년 정도 생각하고 진입을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3년차 시험을 바라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앞에 있는 1년차에 합격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합니다. 고시는 양이 정말 많은 시험이고 그만큼 공부해야 할 것도 많아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앞 내용을 까먹으면 다시 공부하고 이런 식의 과정이 지속됩니다. 따라서 슬로우 스타터로 임할 것이 아니라 초시 때부터 전 범위를 보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100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좋은 공부감을 유지해야 2년차 또는 늦어도 3년차 때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재밌는 말처럼 시험장에서는 확실한 이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답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고시공부하는 기간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 V. 제3차시험(면접)의 준비

### 1. 총괄

면접은 직무역량(PT) 그룹토의 그리고 인

성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올해 그룹토의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생략되어 저는 PT와 인성면접만 보았습니다. 면접은 총 3등급인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뉘어집니다. 우수는 2차 성적과 관련 없이 합격이고 보통은 2차 성적순 그리고 미흡은 2차 성적과 무관하게 불합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보통을 받으므로 주로 2차 성적순으로 합 불이 결정됩니다.

## 2. 직무역량과 상황면접 (PT)

직무역량은 많은 자료들을 갖고 이를 한 페이지에 요약하여 정해진 틀에 따라 정리한 뒤 발표를 합니다. 면접관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며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초반에 직무역량으로 고생하지만 2주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 수험생들간의 실력 차이가 거의 없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 2차시험의 성적이 애매하다고 생각해 직무역량에서 저만의 승부수를 두었습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의 해결방안을 보면 면접 책자에 적혀 있는 내용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저는 부처들의 정책들을 보며 따로 해결방안들을 정리했고 최대한 남들과는 다르게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실제 면접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시사상식과 여러 정책들을 곁들여 설명했는데 면접관들이 흥미롭게 보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30분 동안 다른 방에 들어가 직무역량과 상황1문제를 작성합니다. 상황 1문제의 경우 딜레마 상황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룹니다. 3주 정도의 시간동안 연습을 하면 PT의 경우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는 실력에 갈 수 있습니다.

## 3. 인성면접

인성면접은 개인경험 1문제와 딜레마 상황 2문제가 출제되어 제가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면접관님들의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계속 꼬리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압박면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 3주라는 면접 준비기간에 개인이 살면서 겪었던 큰 경험들 2~3가지 정도를 자세하게 정리하여 개인경험 문제에 사용합니다. 딜레마 상황 같은 경우 면접 책에 있는 이론들과 추가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답을 합니다.

저는 면접기간 동안 인성면접에서 어떻게 해야 차별성을 가져갈까 고민을 했는데 개인경험을 재미있게 푸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굳 경험, 동아리 경험을 두고 극적으로 각색하며 사용했습니다. 상황면접의 경우 와룡헌 지도교수님이 말씀하신 공감능력과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실제 면접장에서 개인경험을 공무원 상황에서 발생할 법한 상황과 함께 최대한 극적으로 각색했는데 다들 재미있게 들으셨습니다. 인성면접의 경우 제 개인경험과 더불어서 반대 측 입장을 최대한 공감하며 합리적이면서도 특이한 해결방안들을 제시했는데 관심있게 보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양현관장님과 와룡헌 지도교수님의 팁들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보여드리고 나왔다는 점에서 후회없이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 4. 종합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발표했던 경험이 많기도 하고 대학에 들어와 여러 면접들을 할 때마다 좋은 평가를 받은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면접 준비가 재미있었고 면접장에서는 떨리기보다 제 의견만을 들어주는 상황이란 점에서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 시작 전에 조금만 노력하면 우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면접 준비를 하며 면접관 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만족하며 면접을 마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걸 보며 우수를 받는 건 면접관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에는 정부 정책이나 시사 상식이 필요한데 3주라는 기간 동안 쌓기엔 부족하다는 점도 불확실성에 영향을 준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2차 공부를 하실 때 커트라인을 목표로 공부하기보다 면접도 생각하면서 커트라인에 +3~5점 정도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면접 준비기간에는 자신이 커트라인 점수라 생각하고 3주 동안 모든 에너지를 투입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VI. 기타

### 1. 공부시간

제 공부시간은 불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역하고 2019년 시험을 준비할 때는 고시반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와 저녁 10시에 집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저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4~6시쯤부터 집중력이 조금씩 흐려졌고 매주 목, 금요일에는 너무 지쳐서 많은 집중을 요구하는 과목 공부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는 아침형 인간이지만 하루 종일 공부해야

하는 고시생일때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시험부터는 11~6시까지 공부, 그리고 저녁 먹고 9시까지 휴식, 9~새벽3시까지 공부하는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최대한 공부시간에는 집중력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밥을 먹으면 축 처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점심은 30분에 끊고 얼른 돌아와서 공부하며 연속성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과외를 하였고 과외는 저녁시간에 잡아 밤11시에 다시 고시반에 돌아와 공부를 했습니다. 따로 쉬는 요일을 두기보다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못할 거 같은 날에 쉬면서 친구들과 맛집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1차시험 전까지 일주일동안 60~70시간 공부를 하였고 1차 이후 2차 전까지는 50~60시간 공부를 하였습니다. 1차시험 때는 공부시간을 늘리기보다 그냥 정해진 양을 끝내면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위의 공부시간 모두 공부시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정해진 계획을 끝내려고 했습니다(물론 하루의 계획이 100%끝난 날은 손에 꼽습니다). 따라서, 어떤 주는 50시간을 내외로 공부하기도 했고 또 다른 주는 70시간 내외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시험 전날에 수면패턴 맞추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비타민전 슬립웰 수면젤리'를 먹으며 조금씩 수면패턴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1차시험 전날에는 응시장소 근처에 숙소를 잡아 충분히 자고 8시쯤에 기상했습니다. 2차시험은 학교에서 명륜 캠퍼스 쪽 숙소와 버스를 제공해주어 새벽에 기상을 해야 하는 압박감을 덜 수 있었습니

다. 3차 때는 과천 근처 숙소를 잡았으나 막상 갔더니 담배냄새가 너무 나고 마땅한 숙소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 자취방에서 택시로 이동했습니다(이동거리 30분).

## 2. 공부장소

공부장소 또한 고시반이 불편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고시반 1층 오픈 열람실이나 학교 도서관 그리고 2차시험 전에는 르하임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했습니다. 일단 독서실형 책상에서 공부를 못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면 간혹 애기하다 공부 흐름이 깨지는 게 싫어 따로 공부했습니다. 오픈 열람실에서의 공부는 너무 공부하기 싫었던 2019년 후반부에 했습니다. 2차시험이 다가올수록 체력적으로 지쳐서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해 낮에는 도서관에 가고 저녁과 새벽에는 스터디카페에 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공부 스타일에 맞게 꼭 고시반에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시반 공부시간 채우는 것도 강제 퇴실할 정도가 아니라면 노력해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공부 스타일에 맞게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 3. 스터디 관련

스터디는 1차와 2차 스터디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스터디의 경우 저는 이동시간 불문하고 신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PSAT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르기보다는 어느 정도 개념이 채워지면 그 이후로는 색다른 풀이법과 적절한 휴식으로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림가는 길에 음악을 들으며

쉬고 일행이나 재경직 사람들의 관참은 풀이법과 공부방법을 얻는 방식으로 공부했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2019년 시험 준비 때는 고시 공부 방법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갖기 위해 2차 스터디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공작법 공부하느라 시간이 너무 없어 성실하게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때는 스터디를 하지 않고 혼자 했습니다. 첫번째는 비록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제가 빨리 겪고 수정해가며 나가는 방법이 효율적이라 생각했고 두번째는 아무래도 스터디를 하게 되면 다같이 공부방향을 잡고 나아가는데 그 당시 저는 하고 싶은 공부계획이 있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으며 공부할 수 있었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인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공부 방향이 잡힌다면 스터디는 필수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4. 과외 및 동아리 그리고 운동

위 세 활동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 공부 철학?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공부시간보다는 공부 할 수 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것에 큰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저는 위 세 활동을 제가 쉬는 시간에 포함시켜 최대한 머리를 맑게 하고자 했습니다. 공부 계획이나 시행착오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맑은 머리를 가지고 일월 저수지를 한 두 바퀴 돌면서 머릿속으로 공부 계획을 구상하곤 했습니다. 또한 모든 공부가 자리에 앉아서 할 필요는 없으므로 너무 암기가 힘든 부분은 과외 가는 길에 외우도록 계획을 짜서 효율적으로 공부하

려고 했습니다.

운동은 19년 시험 끝나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필라테스를 했고 2019년 하반기 때 유틀리티센터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필라테스를 배우고 난 뒤 반 년 동안은 자리에 아무리 오래 앉아도 숨이 차거나 허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공부하느라 바빠 운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차 시험 전에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매일 20분 정도라도 홈트를 하신다면 공부하는데 체력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VII. 나가며

다른 시험의 경우 시험을 잘 보면 스스로에게 많이 뿌듯했지만 고시의 경우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붙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기 전까지 떨어지면 내년에는 도저히 할 자신이 없다 생각했는데 수험번호가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운용재(효경, 효근, 태욱, 재운, 영현, 준영, 주태, 한길형, 동우, 성보, 심찌, 재원, 현기)분들 너무 감사하고 21년도 시험에는 꼭 붙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같이 면접 스테디했던 양현관 분들과 두 조교님들 그리고 배상훈 및 김상태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2차 시험 직전 택배 상하차를 놓쳐 걱정했을 때 공부에만 집중하시도록 배려해주신 운용재 오우림 조교님께도 감사합니다. '반촌'동아리 친구들(어진, 웬디, 시인, 승주, 찬홍)에게 너무 고맙고 반촌이 없었더라면 시험을 그만두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시험 때마다 기도해주시는 플로렌시아 수녀님과 묵상글 보내주시

는 마티아 수녀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시험 전에 힘내라며 커피와 카톡 보내주는 가족 같은 LC08 친구들(대희, 세영, 도현, 명수, 민지, 승환, 형욱, 현욱, 지동, 인혁, 용지, 현기, 유승) 너무 고마워. 지금은 삼성으로 떠났지만 영원한 밥 친구이자 공부하며 카톡으로 매일 연락하는 동군이. 매번 느낌이 온다고 말해준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고 응원해준 덕에 합격했다고 생각해. 주식대박나자! 같은 17110 전우이자 수강신청 까먹고 있을 때마다 말해주는 빵재. 2차 합격 당일 면탈 할까봐 불안해할 때 면접 박살낼 수 있다는 응원 덕분에 3주를 버텼다고 생각해. 장학금 받고 소프트인재 거듭나자! 공부하다 미쳐갈 때쯤 가끔씩 힐링해주는 아웃답 패밀리이자 고분자 새터 멤버(승태, 효승) 고마워. 승태는 훨씬 좋은 곳으로 취업할 거고 효승인 포스코 적용 박살낼 것이라 생각해ㅎ. 우리 휘문인 종화 고마워. 동역학은 내가 알려줄게! 또 한명의 17110 덕호 고마워. 만날 때마다 신박한 생각들로 재밌었어.

고시에 대해 알려주고 공부 중간 흔들릴 때마다 뜻 깊은 조언을 해준 제 사촌 동희 형 정말 고마워! 형이 준 서브가 내 공부의 큰 틀을 만들어주었고 덕분에 20대를 알차게 보냈다고 생각해. 앞으로 살면서 보답할게. 제가 흔들려도 끝까지 믿어 주시고 집에 오면 편하게 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끔 공부에 치여 방을 정리하지 못하고 살 때마다 몰래 청소해주시고 가주시는 어머님과 공부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심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제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해결책을 응답해주시는 주님과 성모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행운! 약속한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도록 하겠습니다.